

近東地域의 服飾研究 II —오스만 터어키(Osman Turkey) 복식을 中心으로—

오 춘 자 · 박 길 순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Near East Costume(II)

— Osman Turkey Costume —

Chun-Ja Oh and Kil-Soon Pak

Home Economics Education, Professor of Chung-Nam University

Clothing and Textiles, Vice Professor of Chung-Nam University

目 次

Abstract	2. 술탄(sultan)제도
I. 서 론	3. 하렘(harem)제도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IV. 터어키 服飾
2. 연구방법과 제한점	1. 基本服飾
II. 歷史的 背景	2. 직물과 문양
III. 文化와 生活 背景	V. 結 論
1. 종교	참고문헌

Abstract

This result of the study on the costume of Osman Turkey are as following.

1. Empire of Osman Turkey(1299~1922) exerted an almost limitless impact and influence on Europe and Asia during their regime 600 years. The distant ancestors of the Osman Turks were nomadic peoples, who wandered in tribal groups through the Central Asia. Therefore their costumes were based on nomadic culture. They had trade with West and East were influenced by Hellenism and Byzantium and

grew, to a strong Islamic political power polygamy with which influence their clothing along with other culture.

2. Topkapi Saray was one of the principal residences of the Osman sultans and his court. Late 17 century, Topkapi Saray found many of kaftans of Osman Turks Empires of 14~17 centuries. Otherwise we studied by the minatures of 16~17 centuries, Since the Topkapi Saray became a museum in 1924, a program of careful restoration has made it possible to access to some parts of it to the public, after centuries neglection.
3. Osman Turkey Empire had important role in between West and East(silk-road). Economic, commercial, social and political factor of Turkey led to a development in the art of weaving(kema, kadife, catma, seraser, zerbeft, hatayi, kntnu, atlas)parallel to the rise and development of the Osman Turkey Empire itself, one which raised the art to a level attained nowhere else in the world. Fabrics woven from gold and silver thread occupied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court life of the time. This was due as much to their symbolic as to their material value, reflecting as they did the power, glory and magnificence of the Empire.
4. In order to study Eastern or Western history of costume one must study Turkey history of costume in advance. Also there is a great need of comparison to study of western, central and north eastern area history of costume.

I.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복식문화는 다른 문화현상과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계속적인 연관관계에 의하여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전승되어진다. 복식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그리고 그 시대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각 나라의 복식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유형이 있게 된다.

터어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헬레니즘과 비잔틴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11세기에는 이슬람교와 문화를 받아들여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며 복식에도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본래 중앙아시아에 유목민족이었던 터어키(Turkey)족은 방목을 위하여 점차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터어키족의 세력은 크게 확장되어 1516년부터 시리아·팔레스타인 및 이집트를 정복하고¹⁾ 계속해서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국경까지 세력이 확장되었다. 오스만 터어키(Osman Turkey) 제국²⁾은 동양과 서양의 분기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여러 이민족의 영향을 주고 받았다.

1922년 세계 1차 대전 이후부터 무스타파 케말(Mustafa Kamal)의 新 터어키 공화국 수립에 따라 전면적인 생활개선으로 인해 이슬람교 부인들의 얼굴을 가리는 북장도 폐지되면서

1) Wiebke Walther(1981), Woman in Islam, Abner Schram, p. 18

2) 오스만 제국은 1299년 오스만 1세부터 1922년 메흐메드 6세가 통치한 기간을 말한다.

전반적인 의생활의 변화와 서구풍으로 변화되었다³⁾.

지금까지 서양유럽복식문화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터어키제국을 비롯한 근동지역복식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세 이후 소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이집트 등에 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대 제국을 이루었던 오스만 터어키제국의 복식문화를 살펴봄으로써 터어키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5세기 후반부터 1924년 터어키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오스만 터어키제국시대 술탄(sultans)들의 중요한 관저였던 Topkapi Saray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문화생활과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Topkapi Saray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복식유물과 이슬람세계에 널리 발달한 그 당시 풍속을 나타낸 세밀화(miniature)와 초상화 등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

Topkapi Saray는 15세기 후반부터 1924년의 터어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오스만 술탄(Osman Sultans)들의 중요한 관저였다. 1453년에 메흐메드 2세(Mehmed II, 1451~1481)에 의해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이 함락되기 전에는 그들의 수도는 부르사(Brusa)와 에디르네(Edrine)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Istanbul)이라 고치고 여러 과정을 거쳐 Topkapi Saray가 술탄들의 궁정이 되었다. 그후 여러 술탄(sultan)이 지나갔고 더욱 화려하고 환상적인 보물이 따랐던 곳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통털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궁은 없다고 한다. 1924년 혁명 이후에는 Topkapi Saray가 박물관이 되어 이곳에 여러 가지 터어키의 예술품과 이란,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등의 노획물과 이 궁에서 발견된 직물들과 직조공장 등 특히 많은 술탄의 kaftan(겉옷)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터어키의 관습에서 술탄이나 그 가족 때로는 대신들도 죽으면 그의 옷과 소유물을 상속인에게 주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옷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표시가 정확하지 않고 이름표가 바뀐 것도 있어 정확한 주인과 이름을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오스만 술탄들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초기 왕들의 이름이었던 Mured, Mehmed, Osman 등의 표시를 붙였는데 어느 시대의 술탄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1964년 부터는 창고에 있던 복식들을 모두 손질하여 고정적으로 전시하게 되었고, 수집된 복식은 2500벌 정도인데 그중에 600벌 정도를 추려서 時代別로 전시했는데 그것은 거의 모두가 남자 복식이다. 여성 복식은 거의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제한점의 하나다.

터어키의 세밀화는 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이것들은 15C의 것으로서 아직도 생생히 전해진다. 16C 부터 그 세밀화들은 술탄이 되었을때 왕정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군대조직이나 왕자의 할례의식을 기념하는 축제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⁴⁾. 16C 외교와 상업의 선두를 걸은 Peter Coeck, Nicholas de Nicolay와, Melchior Lorch 와 같은 화가들에 의해 의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8C의복은 유럽에서 인기있는 Flemish Van Moeur의 그림들에 나타나는데 스위스의 Jean Etienn 도 1738년에서 1742년 까지 터어키에서 살면서 그의 그림에 복식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당시 궁정화가인 Levni (1720~1730)에 의해

3) 황춘섭(1988), 민속의상, 서울. 수학사. p.116

4) Jennifer Scarce, Principles of Ottoman Turkish Costume, p. 17

여성 궁정복이 최고로 아름답게 그려졌으며, 19C 예술가인 Jean Brindish나 Thomas Allom과 Amadeo Preziosi 들은 좀더 상세히 의상을 묘사했다. 터어키와 유럽의 회화들 모두 오스만 궁전의 가정생활에서 하류계층까지 사진적듯이 나타냈다⁵⁾.

초상화인물이 입은 복식이 그들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의상이며 그 당시의 일상복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하겠다. 그러나 모든 초상화가 실제인물이 모델이 되어 그려진 것이 아니라 진술에 의해 그려진 것도 있다. 예를 들어 Nicholas de Nicolay(1551)와 Melchior Lorich(1559)에 의해 그려진 술탄 술레이만(Sultan Suleyman)의 러시아 태생의 부인 Hurrem Sultan(1504~58)의 두 초상화는 비록 생생한 삶의 느낌이 지적하는 대로 뽑아 그려진 그림은 아니지만 후궁들로 부터 밖으로 흘러진 이야기에서 걸려진 판례와 뒷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 졌다⁶⁾는 것이 또하나의 제한점이다.

II. 歴史的 背景

터어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대륙이 잇닿아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년동안 수많은 민족이 오가고 흥망이 되풀이 하여 일어나는 역사의 장이 이루어졌던 나라다.

본래 중앙아시아에 살던 터어키계의 부족은 倣牧을 위하여 점차 西쪽으로 진출하는데 B.C 20세기 경에 인도, 유럽어 족에 속하는 히타이트족이 옛날 소아시아 반도인 아나톨리아를 통일하여 히타이트 제국을 세웠다.

B.C 1200년경부터 트로이 전쟁이 히타이트제국의 쇠퇴를 가져왔고 B.C. 334년에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그리스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후 B.C 30년경부터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A.D. 330년에는 東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대제가 비잔틴을 콘스탄티노폴이라 하여 수도를 건설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비잔틴 문화가 꽃을 피웠고, 동시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그리스도교 문화가 가장 번창한 곳이 되었다.

터어키 족은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능숙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기동성이 있었고, 부족이 곧 군대와 같이 잘 훈련되어 있었다. 즉, 터어키 족은 이미 6, 8세기경에 몽고로부터 흑해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넓혀서 연방국(confederation)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서역사람들과도 교역을 하였고 비잔틴과는 군사조약도 맺었으며, 터어키군은 주위국에 용병으로 종사하면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주로 물물교환에 기초를 둔 교역의 형태로 이민의 물결은 성공적으로 계속되었다. 드디어 오스만 터어키(Osman Turkey)제국은 이슬람교 세계에서 막강한 존재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 페르시아의 바그다드에 있는 아바시드(Abbasid)궁정의 많은 칼리프(caliph)⁷⁾들은 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오스만 터어키(Osman Turkey)제국의 집정관의 경호를 받고 있었다. 이슬람은 7세기경 아랍이 페르시아와 아프카니스탄을 정복하면서 중앙아시아에 이미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갔다. 터어키는 9세기경부터 용병으로 종사하던 페르시아, 이라크에서 이슬람

5) Jennifer Scarce, op. cit., 18.

6) Jennifer Scarce, op. cit.,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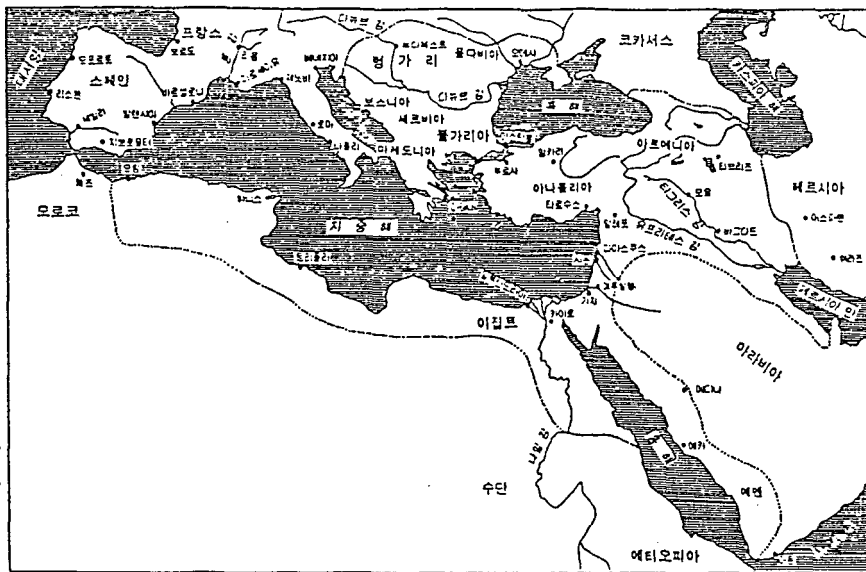
7) 정치, 종교의 권력을 아울러 갖는 이슬람교단의 지배자를 일컫는 말.

로 개종하기 시작하였다.

11세기에 들어와 중앙아시아 일대에 분포해 있던 터어키족에 속하는 셀주크터어키(Seljuke-1038~1194)는 사라센 제국의 아바스 왕조가 쇠퇴함과 동시에 서아시아로 진출하여 이슬람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어서 13세기에 일어난 오스만 터어키(Osman Turkey)는 국토를 넓혀 나가면서 1455년은 메흐메드 II (Mehmed II, 1451~1481)가 비잔틴제국을 정복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스탄불이라 이름을 바꾸어 이슬람의 중요한 도시가 되어 크리스찬의 도시가 이슬람의 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정복사업의 계속적인 성공으로 오스만제국은 1683년에는 그 영토의 확장이 그 절정에 달하여 비엔나(Wien) 근처에서 이란국경까지,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북구해안 지대와 홍해안 지역을,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를 제외한 북아프리카 전역을 통합하고 연안을 모두 정복하여 수도인 이스탄불의 안정을 도모하였다(그림 1).

그러나 너무 넓혀진 국토는 그 통치가 어려워져 결국은 산업혁명과 근대화에 뒤떨어져 세력이 쇠퇴되었다. 19세기 러시아와 크림리아 전쟁에서 국력을 많이 상실했고 세계 1차대전때 독일측에 가담해 패하여 터어키는 점점 더 쇠퇴 일로에 들어섰다.

이때 케말 파샤(Kemal Mustafa)장군이 술탄(sultan)⁸⁾, 칼리프제(calife)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포하고 1923년에는 헌법을 만들고 케말 파샤가 초대대통령이 되었다. 그후 수차례에 걸쳐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 교체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터어키에 이르렀다.



<그림 1> 오스만 터어키제국의 전성기(1550년경)⁹⁾

8) 터어키의 황제 또는 회교국의 군주를 일컫는 말.

9) 김정위(1987), 중동사,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 200.

Ⅲ. 文化와 生活背景

1. 종교

오스만 터어키 제국의 조상들은 유목민들로서 유라시아 草原地帶의 東알타이 산맥과 야니 세이(Yenisei)강 남쪽, 바이칼 호수, 오늘날 외몽고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영혼의 세계를 통하여 자연의 힘을 믿는 샤머니즘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生活방식은 동물을 방목하면서, 그들과 접촉이 있던 아나톨리아(Anatolia), 페르시아(Persia), 이란을 실제로는 서서히 침입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형태이었다. 오스만 터어키제국은 異民族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이란, 아라비아, 비잔틴 등이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1055년 바그다드를 점령함으로써 이슬람세계의 지배자로 된 이래¹⁰⁾ 지금까지 터어키제국은 이슬람제국이다. 그러나 영토를 확장하여 이민족을 흡수하면서 터어키 제국의 국민은 종교적 바탕에서 보면 이슬람교를 비롯하여 그리스정교, 아르메니아 기독교 및 유대교 등으로 나뉘어 있으나 대부분이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의 종교 조직의 정상에는 이스탄불의 무프티(mufti)¹¹⁾, 즉 세이홀 이슬람(shelkh ul-islam)¹²⁾이 있다. 이론상으로는 세이홀 이슬람은 술탄(sultan)의 결정이 이슬람 聖法에 어긋날 때에는 언제나 거부할 수 있었으므로 그 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세이홀 이슬람은 술탄이 임명하고 어느 때고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술탄도 세이홀 이슬람의 파드와(fatwa)¹³⁾를 받기 전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없었다. 종교조직의 모든 요직은 이슬람교도로 태어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었다. 그 아래 올라마(ulama)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슬람 성법의 올바른 시행과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이었다. 이슬람교도는 쿠تاب(kuttab)¹⁴⁾ 과정과 마드라사(madrasa)¹⁵⁾ 과정을 거치면 올라마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료조직의 요원과 터어키 제국의 이슬람교도 시민은 모두 이슬람 성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 성법을 관리하는 법관을 카지(qazi)라 하는데 중요 직책의 카지는 세이홀 이슬람이 직접 임명하였다¹⁶⁾.

터어키 제국의 시민은 종교적 바탕에서 4개의 밀라(milla)¹⁷⁾로 구분된다. 즉 이슬람교도, 그리스정교도, 아르메니아 기독교도 및 유대교도이다. 이 밀라제도는 메흐메드2세가 1453년에 이스탄불을 함락한 후에 규정하였다. 각 밀라에는 종교, 문화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 광범위한 자치체가 허용되었다. 비 이슬람교도는 덤미(dhimmi)라 불리는 人頭稅(Jizya)를 지불하였다¹⁸⁾.

10) Wiebke Walther, op. cit., p. 18.

11) 이슬람 율법가.

12) 이슬람의 원로.

13)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인 견해.

14) 이슬람성원에 부설된 초등학교.

15) 일종의 신학교.

16) 김정위, op. cit., p. 210.

17) 원뜻은 민족이나 공동체로 쓰임.

18) 김정위, op. cit., p. 211

이슬람교는 622년에 무함마드(Muhammad, 570~632)에 의해 시작되었다.

무함마드가 40세때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唯一神인 알라(Allah)를 믿을 것을 아랍인들에게 포교하였다. 그들 아랍부족간의 끊임없는 분규는 血緣으로 뭉쳐진 단위 부족의 우상숭배 사상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타파하는 길은 유일신을 믿음으로서 혈연을 초월하여 아랍족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본다.

무함마드는 622년 메카에서(Mecca)에서 메디나(Medina)로 이주하여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 단위부족의 요직인 부족장, 점술사, 중재사, 戰時의 지도자 기능을 자신의 한몸에 집중시켜 이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즉 자신은 신의 使聖으로 계시를 받아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운 종교로 唯一神알라에 절대 순종한다는 뜻으로 이슬람(Islam)이라 명칭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교집단중에 이슬람교는 여성들을 harem¹⁹⁾이란 영역에 봉쇄시켜 놓았기에 터어키 여성생활, 특히 복식에 관하여 알아보는 힘들다.

2. 술탄(sultan) 제도

거대한 오스만 터어키 제국에는 종교, 민족, 언어적으로 다른 수 많은 인종이 살고 있었으며, 이러한 잡다한 인종군을 다스리는 데에는 오스만 제국의 우수한 관료조직이 있었는데, 이 관료 조직의 정상에는 술탄 칼리프(sultan-halifa)라는 종교적 상징이며 세속적 통치자가 있었다.

술탄은 이슬람세계의 정치적 권력자인 황제의 칭호로써 처음에는 칼리프의 별칭이었다. 875년에 아바스朝의 칼리프 무다미드(870~892)의 동생이 처음으로 이 칭호를 수여받았으나, 가즈나(Ghana)朝에서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식 칭호를 쓴 것은 셀죽크 조의 토그릴 베크(1037~1063)가 최초로 사용하였고 소 아시아의 셀죽크朝, 이집트의 맘루크朝, 오스만 터어키朝 등이 이 칭호를 습용하였다.

오스만 터어키 제국의 제 9대 술탄인 셀림 1세(Selim I, 1512~1520)가 1517년에 이집트의 맘루크朝를 멸망시켰을 때 그 왕조가 비호하고 있었던 아바스朝의 자손으로부터 칼리프의 칭호를 물려받는 형식으로 세속권력의 행사자인 술탄이 정신계의 최고 수장을 겸하게 된 이후부터 4세기에 걸쳐서 술탄 칼리프 체제가 유지되었다.

술탄의 황실 즉 세라이(seray)는 모든 관료조직의 심장부였다. 이 궁성은 술탄의 집무 뿐만 아니라 사저도 관리하는 행정요원의 양성소가 되었다. 슬레이만 1세 때 완성된 후 수 백년간 지속된 관료조직은 술탄이나 그의 대리인인 와지르를 정점으로 하여 피라밋식으로 정립되어 있었다²⁰⁾. 술탄궁은 술탄의 집무와 사생활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여성들만의 영역인 하렘(harem)이란 곳이 있으며 일부다처제로 여러 여성을 거느리고 있다.

여기서 술탄位 계승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어서 술탄이 죽은 후에는 항상 계승전쟁을 치르거나 국가가 분열되기 십상이었다.

술탄궁에는 술탄이나 가족들이 죽으면 유물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물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터어키 복식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술탄의 복식이 남아 있

19) 하렘(Harem)이란 중세 이슬람국가에서 여성들의 거처를 가리키고 외부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봉쇄구역이다.

20) 김정위, op. cit., p. 206.

어 좋은 자료가 된다.

1922년 터키 혁명후 술탄제와 칼리프제가 분리되었고, 술탄제는 1922년 11월 1일 대 국민 의회의 의결로 폐지되었고 칼리프제는 1924년에 폐지되었다.

3. 하렘(harem) 제도

하렘(harem)이란 아랍어로 haram이며 “불법”, “보호”, “금지”란 의미가 있다. 궁궐내의 후궁이나 각 가정의 내실을 가르킨다. 원래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성지인 Mecca나 Medina를 haram이라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금지된 곳이다²¹⁾.

터키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렘을 여성들, 아이들, 시종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하렘에 사는 사람이나 외부 사람들이나 마음대로 내왕을 할 수 없는 비밀지역으로 구성되었다. 즉, 가까운 친척이외의 일반 남자 등의 출입이 금지되던 장소를 의미하고 중세이래 이슬람사회의 두드러진 풍습의 하나로서 시행되어 왔다.

하렘의 여성들만 있는 별개의 지역에는 봉쇄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남성들에게만 허용되는 곳이다. 집은 아주 잘 꾸며졌고 환관들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렘의 개념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슬레이만 1세(1518~1566)때 seray궁내에 보호와 금지의 구역으로 하렘을 궁정내에 세웠다. 하렘궁에 사는 여자들은 여러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오게 된다. 이슬람교에서는 일부다처제로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한 시종드는 여자노예(odalisque)²²⁾들도 원하는 대로 둘 수 있다. 그중에는 다른 군주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여자 노예도 많았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지중해부근국들에서 성행해왔던 노예시장에서 포로들이나 노획물으로써 침략자와 지주들에게 공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사고 팔았다. 노예시장에서 선택된 소녀들중에 술탄에게 선물로 바쳐져 하렘궁으로 가게 된다. 궁에 보내면 소녀들은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궁의 예절과 교육을 시킨다.

하렘의 여성들은 특별구역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술탄을 통하여 그들의 친지를 고관직에 임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²³⁾.

즉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들과 차별이 주어지기는 하였으나 삶에 있어서 주위환경과 평행을 이룬 꼭 필요한 공공역할들을 하였다. 왕실의 곳곳에서 큰 힘을 가짐으로써 주요한 임무를 뛰우고 자금과 부를 관리하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은 존재였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성들은 공들여서 구성된 사회생활의 의무가 포함된 가정일과 공식적인 방문 등에 종사하였다²⁴⁾.

술탄은 하렘에 많은 여성을 두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술탄은 수많은 아들을 두게 되지만 장자 상속제도가 없었던 때에는 술탄위 계승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었고, 속세에서 성장해서 들어온 하렘여성들이 정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휘둘러 정부 요직의 인사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으므로, 왕이나 부호들은 환관으로 하여금 하렘의 여성들을 돌보고 단속토록 했다.

이처럼 중세 이슬람 사회의 여성들은 하렘에 가정내에서 종교상 행사에 참석하며 집안에서 자녀의 교육이나 가사일을 책임지고 여자 친구들과의 교제 등으로 생활하였다.

21) Alev, Lytle Croutier, Hareme, Belfond. 1989. p. 17.

22) odalisque : 터키 황제의 궁녀들을 섬기던 여자노예. 터키 황제의 처첩. 하렘의 여자를 지칭한다. Alev, L. C. op. cit. p. 30.

23) 김정위, op. cit., p. 206.

24) Jennifer Scarce, op. cit., p. 15.

IV. 터어키 服飾

오스만 터어키 민족의 조상들이 최후로 페르시아의 아나톨리아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외몽고에서 흑해까지 광대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동안 복잡한 인종과 문화의 결합은 원래의 전통과 유입된 사람들사이의 상호교환으로 끊임없이 풍부한 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복식의 발전과정을 그림과 문학적 자료를 비쳐보았을 때 오스만 터어키 복식의 형태, 구성, 재단의 방법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²⁵⁾.

가장 초기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터어키 민족의 최초의 고국과 관련된 바이칼 호수 남부 알타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9년 소련의 고고학자 Sergei Rudenko에 의해 서부 시베리아(Siberia)의 파지릭(Pazyryk)에서 B.C 5세기경으로 보이는 5개의 고분을 발견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식의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²⁶⁾. 이 고분은 기후조건으로 지금까지 열어 있었으므로 그 안의 모든 부장품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다. 시종자와 말들을 함께 매장한 것으로 보아 유목민 추장의 분묘로 추정된다. 그 곳에는 시종자와 말뿐만 아니라 카페트, 의복과 장신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고분의 발굴로 인해 알타이 지역 유목민들의 물질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잔존한 복식들중에 한 예로서 린넨상의는 터어키 여인들이 입었던 gomlek의 재단, 구성, 장식 등과 같은 직선 재단 방법을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재단은 좁은 직조기에서 짜낸 직물을 이용한 바느질 방법이다.

그리고 동시대에 알타이 지역 유목민은 스키타이인들이고, 남부 러시아(Russia)와 우크라이나(Ukraine)에서 코카서스(Caucasus)를 통하여 동부 터어키와 북서 페르시아에 퍼져 있던 부족들은 서로 얽혀 거칠게 지배하였다. 그와 같이 알타이 지역 유목민들도 시종자들과 다른 부속물들을 그들의 추장과 함께 매장한 것을 알 수 있다. B.C 5~4 세기경의 우크라이나(Ukraine)의 한 고분의 젊은 여성은 금판으로 장식한 길고 꼭맞는 드레스를 입고, 금 돈을 무늬와 금고리 장식이 달린 원추모양의 머리장식은 오스만 터어키 여성들의 머리장식과 비슷하다.

또 그와 비슷한 복장은 B.C 2세기 흉노(hsiung-nu)족의 고분에서 발굴된 것으로 몽고 복장에 있는 담비 모피로 장식을 댄 여성의 붉은 실크코트는 발목까지 오는 길이에 약간 넓어진 스커트와 길게 뺀 소매는 오스만 여성이 걸음으로 입는 ferace와 비교할 수 있다. 자색의 풍성한 모직바지는 발목부분에 잔주름을 잡았고 터어키 여성의 바지인 shalwar와 비교할 수 있다.

특별히 9세기 Bezeklik사원의 벽화에 위구르(Urghur)여인의 복식(사진 1)²⁷⁾에서 후기 오스만 터어키복식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둥근 목둘레에 붉은 줄무늬의 속옷을 입고, 소매가 길어서 손목부분에서 걸음위로 다시 끌어 올린 것은 터어키의 gomlek와 비교할 수 있다. 다른 옷들은 앞이 여며진 짙은 황색 외투에 가려 볼 수가 없다. 모든 바느질자리는 붉은색과 황색실을 꼬은 것으로 돌렸고 앞판과 등판이 어깨로 넘어간 한자락의 천으로 된 것을 쉽게 볼

25) Leiden, E. J. Brill. Encyclope'die de l'Islam. (Tome. V) 1986. P. 756.

26) Jennifer scarce, op. cit., p. 21.

27) Jennifer scarce, op. cit. P. 34.

수 있다. 무릎부분의 수평바느질자리는 분명히 다른 천을 덧대어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바느질자리는 어깨바느질과 같은 방법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앞가슴 양쪽끝에 솔칼라 형태로 뒤로 접혀진 것은 오스만터어키 여성들이 겹옷으로 덮어 입는 ferace의 형태와 꼭 같은 것으로 본다. 머리장식도 어깨와 등뒤로 여러 가지 끈으로 땅아늘인 머리들은 페르시아와 터어키 도처에서 변화와 함께 널리 보급되었다. 5~8 세기경에 판지켄트(Panjikent)와 사마르칸트(Samarkand)의 속디안(Sogdian) 벽화에서 발목까지 오는 바지와 긴 소매와 사선으로 앞을 덮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을 볼 수 있다. 7세기 중엽이후 점차 서쪽으로 오면서 문화의 주체성은 페르시아적이고 Arab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성의 복식에 관한 벽화도 없고 자료가 없어 분명히 지적할 수 없다. 수집된 터어키 복식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의 것이고 그외의 것은 세밀화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아랍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은 하렘(harem)궁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므로 외부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터어키 술탄(sultan)들의 服飾은 초상화와 Tokapi Saray 궁에서 발굴된 것으로 알아볼 수 있으나 다른 면의 터어키 하렘 여성들의 복식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

Topkapi Saray궁은 15세기 후반부터 1924년 터어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오스만 제국 술탄들의 관저였었다. 1453년 Mehmed II (1451~1481)에 의해 Constantinople이 함락되기 전에 그들의 수도는 Brusa와 Edrine이었으나, 그 후 Constantinople로 수도를 옮기고 Istanbul이라 하였다.

그후 여러 술탄이 지나가면서 더욱 화려하고 환상적인 보완이 따랐던 곳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통털어 이만큼 화려한 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헐적인 화재로 인해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1924년 이후 터어키의 혁명과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Topkapi Saray는 박물관이 되었다.

이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수집품들의 집합장과 같아 중국의 자기와 대부분이 16세기부터 쇠퇴해가던 이집트, 이란, 시리아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많다. 그러나 동맹국들과 공물을 바치는 나라에서 온 선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외 서양에서 선물받은 시계들, 무기들, 기계들도 전시되었다. 또한 여러가지 예술품 중에서 놀랄만한 것은 이 궁에서 직조한 직물들과 술탄의 kaftan이 많이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터어키의 관습에서 술탄이나 그의 가족, 또는 대신들이 죽으면 그의 옷과 소유물들을 상속인에게 주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옷들이 발굴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 옷의 주인공과 연대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고 다른 것과 서로 바뀌거나 분실된 것도 많아 정확한 연대와 주인공을 알 수 없다.

더구나 술탄들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초기 술탄의 이름이었던 Mured, mehmed, Osman 등의 표시를 붙였지만 어느 시대 술탄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1964년 부터는 창고에 있던 옷들을 모두 손질하여 고정적으로 전시하고 있고, 수집된 복식은 2,500벌 정도인데 그중에 600벌 정도로 추려서 時代別로 전시했는데 그것은 거의 모두가 남자복식이다. 여자복식은 harem궁이 없어지면서 거의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 基本服飾 (14세기~16세기 말)

1) 모 자

(1) 터 반 (turban)

터반은 터어키어로 카부크(kavuk)라 하고 재료로는 펠트나 두꺼운 모직에서부터 아주 고운 베일(veil)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사진 2) 긴 천으로 터반을 둘러싸는 것을 sarik 또는 tulbend라 한다. 술탄이나 고급관리들이 주로 쓰는 터반은 원통형이고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은 65cm나 된다고 한다.(사진 3, 4) selim kavuk는 양쪽이 블록하거나 고운 흰 바이어스천으로 감아올리고 위에는 붉은 펠트로 작게 말아서 고정시키기도 하고 깃털을 꽂기도 하며, (사진 3, 5) khorasani kavuk, müduevvcze, kafssi라 부른다.

보족한 꼬깔모양의 터반으로 17세기 후반부터 공직자들만 쓰던 것인데 윗부분은 꼬깔모양이고 아래부분은 주름잡힌 고운 흰천으로 머리를 둘러 아랫쪽에서 매거나 브로치나 금색리본 등으로 묶고, kallavi, khartawi라 한다. (사진 2)

(2) 뺨달린 모자 külah 와 뺨 없는 kalpak

külah는 남녀 모두가 널리 쓴 것으로 군인들이나 회교 승려들,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썼다. 이 모자의 모양은 재료에 따라 수십가지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있다. 펠트, 모직과 교직한 것뿐만 아니라, 털, 작은 터반, 조각, 장식끈 등과 같은 재료로 섞은 모직 천으로도 만든다.

여자들만 사용하는 모자로서는 siper kulah로 끈이나 뺨이 달린 삼각수건이고, carshaf kulah는 면사포 베일이다. yashmak 혹은 khotoz는 삼각수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모양은 원추형, 투구형에 얇은 천이나 솔로 장식하고 깃털 장식도 하며 또한 보석과 리본으로도 장식한다.(사진 6, 7) 또한 뺨없는 모자(kalpak)들도 많이 사용하였다. 이같은 모자들의 형태는 원추형, 꽃갈, 원통관, 투구, 위쪽을 부풀린 원추형, 그외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다.(사진 11, 12, 13, 15)

궁정의 시종들, 군인들은 원추형 kulah에 비단 장식과 여러가지 다른 장식을 하여 썼다. 꽃갈이나 투구모양 kulah는 앞이 약간 올라가고 금 장식끈으로 둘러싸고 공직자들은 깃털장식을 했다. 이슬람 승려들은 꽃갈, 투구, 윗쪽을 부풀린 원추형의 kulah를 썼다. 여자들모자에는 harmaniyye, yasmak와 같은 긴 수건이나 면사포를 달아서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린다. (사진 14)

2) 상 의 (kaftan)

터어키의 복식 중에 가장 특성이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근동지역 전체를 통해서 널리 입혀지고 있는 것이 kaftan이다. 앞이 트인 길고 풍성한 내리다지로 대개 소매가 달려 있지만 소매없이 조끼형태의 구성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양하다.

터어키 카프텐의 재단(그림 2)은 직선재단으로 기본선은 같으나 다양한 길이와 옷깃의 넓이, 소매길이가 다르고 단추로 채우든가 끈 장식으로 매고 소매를 갈라놓든지 혹은 소매를 길게 늘어뜨린 것과 특이한 장식을 하는 다양한 카프텐이 있다.

① 禮服 : khil'at, ferädje, djübbe, keräke, abä, bimish 등의 예절용 카프텐은 아주 섬세하고 풍부한 직물로 발목까지 오는 긴 것과 땅에 끌리는 것도 있고, 깃을 겹치기도 하고 맞닿아



<사진 1> Bezeklik 벽화의 Uighur여인(B.C 9세기경)



<사진 2> 어느 왕자를 초대한 세밀화. 여러가지 터반의 모양을 볼 수 있다. Kulliyat of Katifi의 필사본이다. Turkey.(1460~1480)



<사진 3> Ahmet I (1603~1617)의 초상화. 장식을 한 높은 터번과 흰담비를 안에 넣은 kaftan을 입고 있다.(N. M. Scotland)



<사진 4> Sulayman I (1520~1566) British Museum, Londres



<사진 5> Mehmed II (1444~1480) Natromal Gallery Londre



<사진 6> Sultan Hurren(1504~1558)의 초상화. 세밀화가 Nicholas de Nicolary(1551)



<사진 7> Sultan Hurren(1504~1558)의 초상화. 세밀화가 Melchior Lorich(1559)



<사진 8, 9> Topkapi Saray궁의 여인들과 무용수(16세기말), Vienne Museum.



<사진 10> 터어키 여성의 실내복. 1618년대 세밀화



<사진 11> 터어키 여성의 실내복. 1820년대 세밀화



<사진 12> 터어키 여성의 외출복. 1818년대 세밀화



<사진 13> 여성의 실내 entari
(1720~1730). Levni의 세밀화



<사진 14> 여성의 외출 entari
(1720~1730). Levni의 세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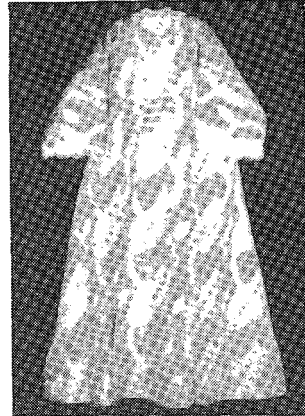
<사진 15> 어린이 entari
brocade(16세기말) National
Museum of Scotland



<사진 16> 어린이 entari
brocade(16세기말) National
Museum of Scot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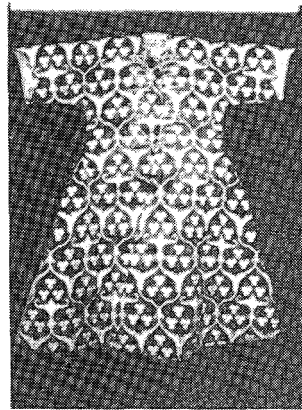
<사진 17> Mehmed II(1451~81)의 짧은 소매 kaftan. 황금색바탕에 심홍색의 silk velvet의 Chintement(tiger stripes와 leopard sports)문양에 부분적으로 green satin으로 안감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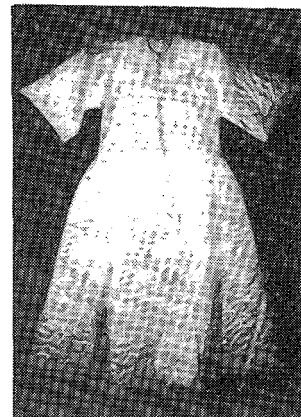
<사진 18> Bayazid II(1481~1512)의 kaftan. 담비털로 장식선을 들렀다. 무늬 넣어 잔 심홍색에 황색의 velvet으로 굵은 나무줄기 고리에 톱니처럼 생긴 잎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굵은 줄기와 잎에는 작은 꽃들로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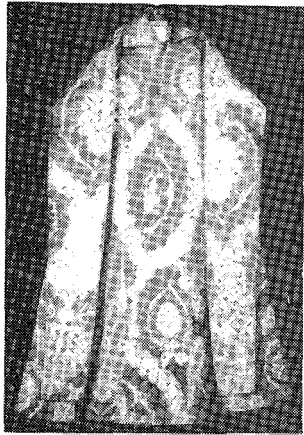
<사진 19> Bayazid II(1481~1512)의 짧은 소매의 짧은 kaftan. 여러가지 색으로 된 serenk (silk broad satin)로 심홍색 바탕에 lotus와 tulip 문양 안에 꽃봉오리와 비늘모양의 문양을 양식화하여 금사를 넣어 짠 것이다. 안감은 황색이나 나오는 부분에는 짙은 녹색을 들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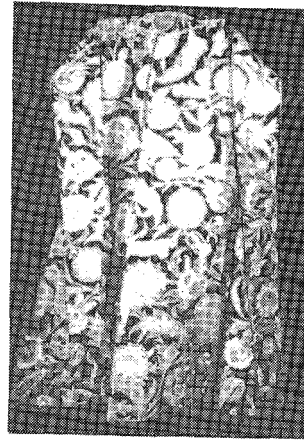
<사진 20> selim I the Grim(1512~30)의 kaftan. 짧은 소매의 누빈 serenk로 검은색 바탕에 사선으로 이랑이 지는 비늘창 앞 장식에 leopard-sports무늬가 있다. 안감으로 심홍색의 silk가 보인다.



<사진 21> suleyman the Magnificent (1520~1566)의 kaftan. 짧은 소매의 상아색 사틴을 누볐다. 안감은 엷은 녹색 silk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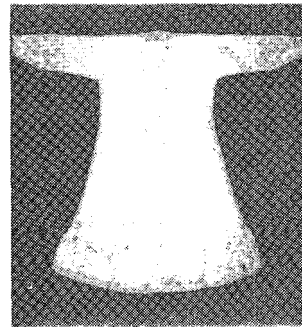
<사진 22> Ahmed I (1603~1617)의 예절용 kaftan. 긴 소매의 심홍색 velvet에 황금색 broad로 짜졌다. 넓은 palmette타원형을 작은 palmette타원형으로 밧줄처럼 꼬아 놓았다. 넘어온 칼라는 녹색 satin 무늬직으로 댔다. (사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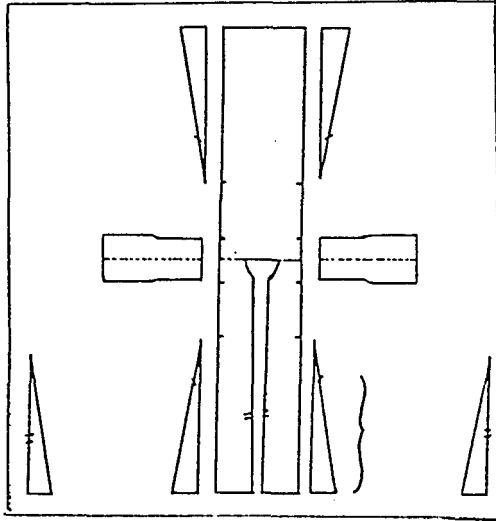
<사진 23> Bayazid의 예절용 kaftan인데 Bayazid II (1481~1512)의 것인지 Sulayman I (1520~1566)의 아들 Sehzade Bayazid(1561)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긴소매, 검은색 바탕의 broad. 주로 금색과 빛나는 여러가지 색들로 깃털같은 잎덩쿨과 꽃들이 있고, 변형된 석류, lotus, 장미문양들이 구성을 이룬다. 여기 문양은 화려하고 반복되는 문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24> Murad IV (1623~40)의 예절용 kaftan. 긴 소매의 심홍색 바탕에 금색 broad문양의 velvet이다. ogival 모양에 큰 꽃문양이 가득 있고 심홍색 satin칼라가 넓고 그 안으로 짙은 청색 satin이 보인다.



<사진 25> saliha Sultan의 entari 이다. Saliha Sultan은 Abdul -Hamid (1774~1789)로 금사테를 가장자리와 재단선에 둘러 장식했다. 어린 소녀의 것이다. Topkapi Saray Museum에 몇 개 안되는 여성용 entari이다.



<그림 2> kaftan 재단도

운 수건이나 버클이 달린 가죽에, 상감의 장식을 했다. setre, cepkan, salta, mintan과 같은 것은 짧은 소매에 길이가 허리까지 오는 짧은 kaftan이다.(사진 19) yelek, djümedan, hayderi 등은 소매가 없고 길이가 짧은 조끼형태이다. (사진 11)

소매없는 긴 tennüre는 주로 승려들이 입었고, 때로는 치마형태의 etek, mintan을 아래 입었다.

3) 內 衣

gömlek, pirahen, iclik와 같은 옷은 kaftan과 entari안에 입는 rob와 같은 것으로 주로 단색의 사틴이나 silk, 면 등으로 만들었다. shalwas는 바지로 남여가 다같이 입는 것으로 넉넉하고 고급 broad, silk, 면 등으로 만든다. cakshir, potur 등은 바지며 주로 남자들이 입는 tozluk도 남자용으로 속내의처럼 입는다. 모든바지에는 띠로 고정시키는데 uckur라 한다.

(사진 15, 16)은 16세기 말경의 어린이의 kaftan이다. 이러한 의복들은 당시에 사용했던 직물의 유형에 마춘 패턴형태를 보여준다. 이 두 의복은 비단으로 촘촘히 짜여져 있으며 생생한 여러가지 색으로 디자인 됨을 특징으로 하는 serenk로 알려져 있다. 둘 다 부드러운 능직물에 은실로 짜여진 바탕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의 주된 요소들은 금실과 심홍색 비단으로 이루어진 튜울립의 잔잔한 소용돌이 무늬 및 청색, 심홍색 비단으로 이루어진 마름모꼴의 무늬와 번갈아 엇갈리며 구성되는 8개의 꼭지점을 가진 반복되는 별무늬 들이다. 심홍색, 청색 비단에 외양적 관심과 광채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면을 구부러지게 하는 기술과 직물장식의 부드러운 추가와 능직물 배경 등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그 색채들은 조심스럽게 균형과 대조를 이루며 직물의 부가적인 미묘함은 그 직물의 변화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 의복은 뒤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사진 15), 앞부분은 두 장 (사진 16)으로 되어 있다. 뒷 부분은 단일길이의 직물에서 절단해낸 것이며 어깨에서 허리까지는 사각의 직선을 이루고 거기서 부터 커브를 그리며 종형의 스커트로 구성되어 발목까지 내려온다. 두 개의 짧고 넓은 옷소매가 양편에 이어진다.

서 단추와 장식으로 여몄으며, 칼라가 있는 것도 있다. 소매의 길이도 다양하며 kaftan 길이와 같이 긴 소매는 사용하지 않고 kaftan을 망또와 같이 어깨에 걸쳐고 긴 소매는 등뒤로 돌려 늘어뜨리거나 매어 위엄과 장식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있다(사진 22, 23, 24). ferädje같은 kaftan은 망또처럼 넉넉한 것으로 모피를 안에 대기도 하고 또는 담비털을 가장자리에 장식해서 입는다.(사진 18) 모피복은 궁정에서도 중요한 옷이다.

② 실내복 : entari, dolama, khirka는 예절용 kaftan아래 입는 것으로 주로 실내에서 많이 입는다. 주로 고급 broad velvet, 사틴으로 된 entari는 앞 트인 긴 rob의 일종으로(사진 8, 9) 띠를 띤다. 띠는 부드러

앞부분의 두개의 조각은 하나의 완전한 의복패턴을 재현 가능하게 해 준다. 둘 다 목 부분에서 부터 긴 장방형을 이루며 내려오다 허리부분에서 약간의 곡선을 그리는 중심조각을 가진 듯 하다. 허리에서 부터 아래로 감칠질된 좁은 삼각형조각은 스커트를 형성하며 포개진다. 옷 소매는 짧고, 안으로 깊게 곡선이 파져 있다. 이 의복의 앞, 뒤를 끝마감하기 위해 거드랑 밑과 양 측면에서 한 바늘 한 바늘씩 바느질되어 있으며 감칠질한 자리로 부터 짧은 수직틈새가 뻗어나와 남아있다.

4) 신 발

eizme와 pashmak는 오랜 세기동안 신어왔던 목이 높은 것이다. cedik, mest는 목이 낮고 바닥이 부드러운 실내에서도 신는다. 노란 바로크가죽으로 만든다. shipship과 terlick은 뒤꿈치가 없는 슬리퍼로 끝이 약간 올라가고 여러가지로 장식하고 수도 놓았다.

술탄의 공식服은 간단하다. 속옷으로는 풍성한 gömlek을 입었는데 모직, 면 혹은 견과 면을 섞어싼 다양한 재료로 되었다. 그리고 풍성한 Shalwar(바지)를 허리에서 띠로 묶고 발목에는 끈을 조여 묶는다. 때로는 부드러운 가죽 부츠를 신기도 한다. 이 바지는 대부분이 겨울 때문에 숨겨져 있지만 짧은 kaftan을 입을 때 볼 수 있다. 그 재료 또한 모직, 공단, 실크 혹은 다른 교직으로 된 것도 있다.

gömlek와 shalwar위에 첫번째 kaftan인 dölma를 입는다. dölma는 소매가 길고 칼라가 없거나 발까지 내려오고 앞에는 단추를 달고 때로는 가는 끈장식을 한다. 그리고 끈으로 매고 주머니가 달려있다. 계절에 따라 적당한 모직이나 실크로 만든다.

16세기 후반에는 술탄들이 공식적 알현때도 이 dölma하나만 입고 있는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다른 그림에서는 술탄이 이 dölma위에 또 다른 kaftan을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누비(사진 21)와 털장식(사진 18) 들도 있다.

예복이나 외국 사절을 접견할 때 공식적인 권위를 위해서 입는 Kaftan은 좀더 길이가 길고 소매도 길게 뒤로 넘기며 금장식이나 보석단추를 단 것이 있었다. (사진 22, 23, 24)

Topkapi Saray궁의 기록²⁸⁾을 보면 (1680-1681) kaftan목록중에 금으로 된 kaftan에 검은 담비로 천을 두르고 다이아몬드 단추와 두꺼운 앞단추 장식에 다이아몬드를 박은 장식이 있다.

5) 세밀화를 통해서 본 터어키 여자복 (16세기 후반~17세기)

수집된 복식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16C 후반 및 17C의 것이다. 그 이전의 것은 세밀화법으로 그려진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아랍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은 하렘(harem)궁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므로 바깥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터어키 술탄(sultans)들의 服飾은 초상화와 Topkapi Saray궁에서 발굴된 것으로 알아볼 수 있으나, 다른 터어키 服飾과 하렘(harem)여성들의 服飾은 불행히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Nicholas de Nicolay(1551) 와 Melchior Lorch (1559)에 의해 그려진 술탄 Suleyman의 러시아 태생 부인 Hurrem sultan (1504~58)의 두 초상화들을 후궁들로부터 밖으로 흘려진

28) Topkapi, J. M Rogers. H. S. : T & H, 1986. p. 25.

이야기에서 걸려진 판례와 뒷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졌다²⁹⁾. Nicholas는 넓은 허리띠로 허리를 졸라매는 줄무늬 스커트와 베일 달린 왕관 속에서 당당하고 사치한 여성으로서 묘사되었다(사진 6). 이에 비해 Lorch의 묘사는 entari의 낮은 목선과 팔꿈치까지 오는 소매자락 밑에 gomlek의 얇은 주름은 훨씬 부드러워 보인다.(사진 7) 머리에는 진주가 박힌 모자를 쓰고 띠로 머리를 묶어 땅아 내려 장식했다.

이 같이 사치와 권위의 이미지는 Sultan Selim II의 부인인 Nurbanu에게서도 오스만 제국의 부와 권위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가 이태리 산 고운 직물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1578년과 1579년에 썼던 두장의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Venetian Bailo와 Nicolo Barberigo에게 비단꾸러미와 이중색의 다마스크 robe 21벌과 19벌의 金衣를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맙다는 답장을 보낸 것이다³⁰⁾. 불행히도 이러한 의복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진 8, 9)는 16세기 후반기 수채화로 하렘궁의 일상생활과 춤추는 여인들이다. 여기의 entari는 화려한 무늬의 실크로 만들어졌다.

(사진 10)은 세밀화로써 17세기 초의 궁정이나 상류계급여성들의 복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의복들은 기본적으로 몇 겹으로 입혀졌으며 색채와 직물들의 교묘한 혼합을 통해서 효과적인 대비가 창출되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shalwar를 입었고 부드럽고 얇은 직물로 된 헐렁한 수평의 주름으로 내려와 있다. 속옷으로 gömlek를 입었는데 16~17세기때 유행한 것이다. 흰색의 잔주름이 잡힌 것으로 발목까지 내려와 있다. 좁은 금색의 피코트(picot)가장자리장식이 아래단에 장식되었는데 그것은 금색의 코뜨기나 니들워크 레이스를 정교하게 달았다. entari는 겉옷으로 화려하고 정교한 직물로 다른 옷들과 색이나 질감에 조화를 이루어 만든 복식이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entari위에 또하나의 kaftan을 입고 그 위에 소매가 없는 yelek를 입었다. entari는 엉덩이까지 오는 길이에 길고 좁은 소매에 넓은 ogival(둥근 천정의 맞보) 모양으로 나뭇잎 모양이 뻗어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직물로 만들었다.

(사진 11)은 긴 길이의 번쩍이는 오렌지 바탕의 두꺼운 실크이다. 팔꿈치 길이에 넓은 소매 끝은 꼭선으로 되었다. 앞중심은 터 있고 칼라는 약간 올라가고 종모양의 스커트에 무늬가 있는 장식단을 땀다. 다른 색들은 치마 앞자락을 걸어 올리므로써 더 잘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자락은 허리띠에 걸어 올려 끼우고 그 띠는 끝에 수를 놓았고(kusak) 나비모양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목에서부터 아래로 금실을 꼬아 만든 단추로 여마게 되었다. 다음은 소매가 없는 yelek으로 엉덩이 위치에서 넓어져서 엉덩이를 덮어 입었다. 이것은 짙은 색으로 다른 Kaftan 과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했고 옆선을 트고 주머니가 보인다.

服飾을 완성시키는데 높고 뽕죽한 모자(terpus)를 썼는데 그것은 은비단(silver brocade)으로 딱딱하게 각이 진 위에 흰 스카프를 달아서 얼굴과 뺨에 꼭 맞게 땀다. 녹색과 금색의 스카프는 앞이마에 둘러고 뒤로 돌아 땀은 후 양끝을 어깨에 오게 한 머리장식이 있다. 부드러운 황색의 가죽 실내화(terlik)와 수놓은 손수건(mendil)을 들고 있다.

29) Jennifer seara. op cit p. 16.

30) Jennifer Scarce. op. cit. p. 17.

술탄 Ahmet III(1713~1730)통치때 궁정화가 Levni(1720~1730)에 의해서 궁정의 여인들 복식이 최고로 아름답게 많이 그려졌다. 그 중에(사진 13)은 Levni의 세밀화로써 실내에서 입는 의복으로 아주 얇은 천의 gömlek와 줄무늬가 있는 풍성한 실크 shalwar와 두 개의 kaftan을 입고 있다. 밝고 명랑한 색의 대비라 볼 수 있다. (사진 14)는 Levni의 그림으로 의출복이다. 여성들이 의출시에 긴 ferädje와 베일(yasmak)로 은밀하게 둘러 입고 의출한다. feradie의 밑단에는 안단과 장식을 대서 처리한 것이 보인다. 18C 터어키 복식은 유럽에서 인기있는 Flemish Van Moeur의 그림들에 나타나는데 스위스의 Jean Etienn 도 1738년에서 1742년 까지 터어키에서 살면서 그의 그림에 자세히 나타내고 있듯이 그것은 이국적인 '터어키'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예술가 집단에서 사용되어진 방법이다³¹⁾.

19세기 예술가인 Jean Brindish나 Thomas Allom과 Amadeo Preziosi 들은 좀 더 상세히 의상을 묘사했다. 터어키와 유럽의 회화들 모두 오스만 왕궁의 가정생활에서 하류계층까지 사진적듯이 나타냈다³²⁾.

19세기 말까지 전통적인 선상에서 서서히, 논리적으로 발전되어온 이러한 매력적인 의복들은 최소한 궁중이나 Istanbul의 상류계층사이에서는 더 이상 압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럽패션의 지배적인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터어키 여성의복에 있어서 외국패션의 영향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으며 그 예로는 16세기에 Nurbanu의 의복들에서 사용되어진 이탈리아 직물과 18C 소녀의 드레스에서 사용되어진 줄 무늬있는 프랑스 비단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술탄 Mahmud(1808~1839) 2세가 유럽제도들의 도입을 일부로 격려한 때인 만큼 유럽패션의 영향이 가속화 되었다. 여성의복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은 유럽의 자켓이 타이트한 전통적 'yelek'을 대체하고, 깊게 주름잡힌 레이스 칼라(collar)와 소매부리가 gömlek을 대체하게 되었다. 마침내 외국대사관과 사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Istanbul의 pera 지역에서 기업화된 드레스 제조업체에 의해 복제되거나 또는 프랑스에서 수입된 완전한 유럽스타일의 의복을 입게 되었다³³⁾.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1890년대 스타일에서 질질 끌리는 스커트와 타이트한 자켓으로 구성된 갈색 우단 의출복과 현란한 스커트, 짧은 소매 헐렁하게 주름 잡힌 몸통부위를 가진 우유 빛 베일, 공단으로 된 복식은 술탄 Murat(1876~1909) 5세의 딸인 Fehime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아직도 Topkapi 궁전의 소장관에 보존되어 있다.

20세기 초에는 좀더 완성되고 원숙한 의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치마, 바지, 원피스이며 그것의 유래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렇듯이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비교연구나 광범위한 양의 의상분야에 대한 이해는 패션발전을 이루는데 관계되는 직물과 구성, 바느질법 등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직물과 문양

1) 터어키 직물의 특징

31) Jennifer Scarce, op. cit., p. 18.

32) Jennifer Scarce, op. cit., p. 18.

33) Jennifer Scarce, op. cit., p. 29.

터어키 직물은 사실의 기법이 사용되었고 양식이 세련되고 섬세하며 화려한 재료와 디자인이 풍부한 것을 볼 때 직조기술이 매우 발전하였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의 직조기술자들이 터어키로 이주해 와서 이집트적 직물기술이 부가하여 터어키 직물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스탄불은 16세기에 직물제조의 중심으로서 특히 금과 은실로 장식되어진 실크의 직조가 발달하였고, 부르사는 chatmas(무늬있는 실크를 짠 벨벳을 만드는 일)에 종사되었다. 터어키 제국의 경제, 정치, 사회적 요소들이 성장과 발달에 평행하여 직조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직물의 제조가 바로 터어키의 부유함과 힘을 과시하게 되었다. 금과 은사로 짜여진 직물은 그 시대의 궁정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직물이 제국의 힘과 명예의 장엄함을 반영해 주는 물질적인 가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물은 복식뿐만 아니라 장식에 큰 몫을 차지하고 또한 터어키 황제가 외국 권력자, 정치인, 외교사절단에게 주는 좋은 선물도 되었다³⁴⁾.

터어키 직물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금·은실을 실크와 함께 사용하여 짜였는데 klaptan³⁵⁾, tel³⁶⁾, sim³⁷⁾의 세가지 방법으로 짜여졌다³⁸⁾. 한편 직조기술에 따라 직물을 분류하면, 다마스 크(damask), 브로케이드(brocade), 벨벳(velvet)이 있다.

터어키의 직물은 16세기, 17세기의 것이 잔존하고 있다. 20세기 이전의 것은 다행히도 가치 있는 옷감과 기록이 이스탄불에 있는 Topkapi Saray에 남아 있고, 1923년 공화국이 된 후에 국립박물관이 되었다. 옷들은 소유자와 입은 장소가 적혀 있으며, 직물은 비교적 잘 깨끗하게 보관되었다. 터어키의 직조기술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특히 14세기와 15세기에는), 16세기에 직물의 질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나라에서는 이탈리아 옷감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규격과 가격을 정하였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실크의 질이 저하되고 양은 감소되었고 실은 주의깊게 방적하지 않았고, 실의 번수도 줄어 들었고 염료는 값이 싸게 되었다³⁹⁾.

2) 터어키 직물의 형태

대부분의 터어키 직물은 바탕을 날실로 무늬를 씨실로 짜게 된다. 터어키 직물의 소재는 주로 실크를 사용하였다. 터어키의 실크직물은 다양한 형태로 직조되는데, 크게 kadife(velvet), kemha(무늬넣어 짠 비단), 그리고 tafta or atlas(단색으로 무늬넣은 비단)로 나눌 수 있는데⁴⁰⁾, 직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¹⁾.

34) Nevber Gürsu(1988), The Art of Turkish Weaving-Desings through the Ages, P. Redhouse Press, P. 26

35) 금, 은사를 실크실 꼬을때 넣어서 느슨하게 짠 직물이다.

36) 금, 은과 같은 금속실을 끈 것을 직물에 넣어 짜는 것으로 Seraser(씨실방면이 공단 결로 된 직물)와 같이 아주 정교한 직물로 ceremonial kaftan을 만든다.

37) 은사와 같은 금속실을 끈 것으로 면실을 완전히 싸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면실은 보이지 않고 금속실만 보인다. 이러한 실을 우단이나 실크위에 무늬를 내는데 사용한다.

38) Nevber Gursu, op. cit., p. 26.

39) Kax Wilson, A History of Textiles, Westview Press. p. 138.

40) Jenifer Scarce, op. cit., p. 41.

1. kemha(silk brocade) - 실크를 이용하여 옷감을 촘촘하게 짜고 금사나 은사로 장식한 것이다.

부르사(Bursa)에서 직조된 이 직물은 1481~1486년에 제시되었던 왕자의 각 지방에 대한 착수명령의 상품들의 목록에서 발견된다. 15세기와 16세기에 있어 kemha는 주로 부르사(Bursa), 에디르네(Edrine)에서 직조되었다. 반면에 16세기 이후는 이스탄불과 Choi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직물은 프랑스, 페르시아, Venetian 궁전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널리 퍼진 이유는 이 직물이 두껍고, 무거우며, 실크의 형태가 그 당시의 궁전 생활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데에 있다. 매우 인기 있는 kemha는 1843년의 오스만 터어키(Osman Turkey) 제국의 마지막 시대인 Hereke에서 열린 실크 직조공장에서 kemha부문의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 17, 18, 20)

2. kadife(velvet) - 날실과 씨실 모두 실크로 되어 있거나 때로는 씨실로 면사를 사용한 것이다. 이 직물에 대한 기록은 1481~1486년에 lemha와 같이 각 지방에서 왕자에게 선물한 목록에서 발견된다⁴¹⁾. 이 기록에는 yekrenk kadife(단색 벨벳), munakkas kadife(디자인된 벨벳), kadife-imuzehhep(금은사를 넣어 짠 벨벳)등이 있다. 이 직물은 부르사(Bursa)에서 주로 직조되었다.

3. catma(chatma 또는 velvet brocade) - (사진 19, 20)무늬가 두드러진 벨벳의 한 종류이다. 벨벳과의 차이는 바탕에 비해 장식과일이 두드러진 것이다. 주로 바탕은 은이나 금박의 실로 짜고 무늬는 벨벳에 있다. 때로는 바탕이 벨벳이 되고 무늬가 금속사로 되었다. 이 직물은 의자와 쿠션의 덮개, 실내장식품, 말장식, 등에 사용되었다. 이 직물은 Bursa, Bileclik, Üsküdar등에서 직조되었다. 15세기말경에 실크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실크외에 면과 린넨을 씨실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8세기와 19세기를 통하여 바탕은 완전히 면과 린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직물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가 있다. sade catma(한가지 색의 catma), munakkas catma(무늬 있는 catma), muzehhep catma(은과 금사로 무늬를 넣은 catma)등이다

4. seraser - 위사가 들출된 평직물이다. 무늬는 날실에 직접 연결된 제 2의 위사가 만들어 낸다. 이 직물의 어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의미로써 무늬가 모든 범위에 이용되고 옷감에 귀한 금속이 사용되는 것을 알려준다. 이 직물은 궁정의 예복과 쿠션 등에 사용되었다. (사진 23)

5. zerbeft - 이 직물은 모티브가 금사로 된 실크직물이다. 16세기 후기에 seraser와 같이 기록에서 나타난다.

6. hatayi - 생사와 은사로 직조된 뽀뽀한 직물이다. 이 직물은 처음에는 술탄에 의해서 카프란에 사용되었다. 후기에는 여자의 의복에도 사용되었다.

7. kutnu - 면직물의 하나로 날실은 실크나 면이었고 씨실은 면을 사용하였다. 이 직물의 특징은 광택있는 실크와 광택이 없는 면이 어우러진 줄무늬이다. 옷감이 직조된 후에 불에 굽고 유연하게 하여 광택을 내게 되었다. 이 옷감은 남자의 rob와 kaftan에 이용되었다.

8. atlas(satin) - 유럽에서 사틴으로 알려진 것으로 가장 오래된 실크 직물의 하나다. 직

41) Nevber, G rsn : op. cit., p. 27.

42) Kax Wilson, op cit, p.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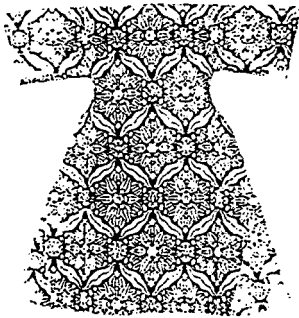
<사진 26> 예절복의 한 부분 kemha rumi motif(16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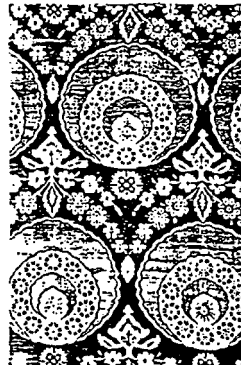
<사진 27> kemha rumi motif(16세기 중엽)



<사진 28> catma, tiger strips와 leopard spots. Topkapi Saray Museum(15세기 중엽)



<사진 29> catma. 꽃문양의 변형 T.S.M(16세기 중엽)



<사진 30> cemha, round medalion(17세기 중엽)



<사진 31> Selim II의 사냥모습을 그린 세밀화. 금dottes brocad의 velvet kaftan(15세기 후반 T.S.M)

물은 날실만 보이는 것이다.

3) 터어키 직물의 문양

터어키 직물의 문양은 돌, 금속, 세라믹에 사용된 문양과 유사한데, 그 이유는 예술가들을 국가에서 장려금을 주어 관리를 하여 문양을 만들었고 이를 다른 공예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었다. 꽃과 줄기 문양, 카네이션, 튜울립, 아티초크(영경귀), 석류 등이 보편적이었다. 16세기에는 오기브(ogive)가 널리 사용되었고 chintamani는 세계의 불과 두개의 물결치는 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중국이 기원으로 보이며 오토만 사람들이 좋아하였다. 초승달과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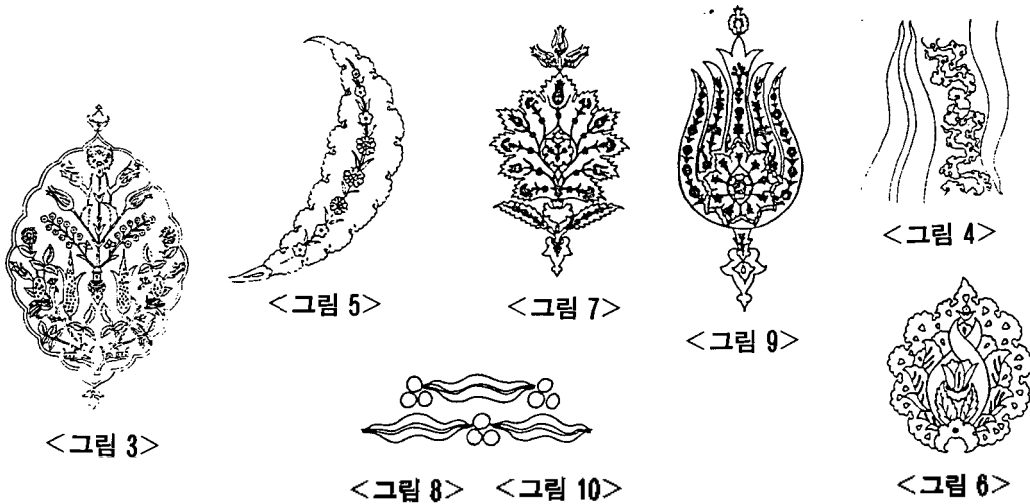
<사진 32> Selim II의 사냥모습을 그린 세밀화. tiger stripes와 triple dot motif의 kaftan과 clock (15세기 후반)T.S.M

의 형태는 터어키와 관련이 있다⁴³⁾.

터어키의 대다수의 궁정 직물들은 수출 상품 아니면 장식품으로서 소장품의 가장 크고 훌륭한 것들이 Topkapi Saray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7세기부터 서양의 영향은 터어키 예술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장식요소로 남아 있는 꽃의 직물디자인은 장미, 튜울립 그리고 다른 꽃들의 분야로 장식되어졌다⁴⁴⁾.

오스만 터어키(Osman Turkey)에서 사용된 직물문양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rumi motif는 새의 날개 형태와 식물 형태를 주로 사용한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seljuks 시대로부터 20 세기에 이르기까지 터어키 예술에 계속적으로 이용된 문양이다. (사진 26, 27)
2. palmette motif와 lotus motif는 고대 Assyria와 Summeria때부터 사용하였으며 원래 Greek에서 많이 볼수 있다.터어키는 Hellenism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터어키 예술에 이 문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 <그림 3> kemha 조각에 있는 ogival medallion과 꽃, 닭과 자연의 motif(17세기초)T.S.M
- <그림 4> 중국의 구름문양과 tiger stips(16세기 후반)T.S.M
- <그림 5> sax motif <그림 6> hatayi motif <그림 7> carnation motif
- <그림 8> tiger stripes와 triple dot motif <그림 9> tulip motif
- <그림 10> fan와 carnation을 결합 motif

43) Nevber Gursu, op cit, p. 19.

- 다. (사진 22)
3. hatayi motif는 연꽃, 장미, 작약 그리고 여러 가지 꽃봉오리들의 문양이다. (그림 3)
 4. tiger stripes(호랑이 줄무늬), leopard spots(표범점문양)는 (사진 17, 20)과 (그림 8)로 15세기부터 궁정예술에 많이 사용되는데 기원은 중국의 불교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줄문양은 바다의 파도이고 점들은 구슬로 부처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다에서 부처가 나타난다는 상징이 있다. 9세기에는 Iran에서 처음 받아 들여 사용하였고, 14세기에는 Mongol 황제의 외투소매에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는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15세기에는 Osman Turkey에서 거의 모든 장식에 사용되었다.
 5. 중국 구름문양은 이슬람 예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15세기부터는 Osman Turkey 궁정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그림 4)
 6. 해와 별 문양은 많은 직물에 장식적으로 사용했고, 그 원형안에 별문양이 들어 있는 것들이 많다. (사진 15) 또한 ogival(둥근 천장의 맞보)문양을 많이 볼 수 있다. (사진 22, 24, 26, 27)(그림 3)
 7. 그의 자연적인 문양, 꽃, 잎, 나무, 과일, 새, 동물들을 문양에 많이 적용하였다.
 8. 기하학적인 문양도 볼 수 있다.

V. 結 論

1. 오스만 터어키 제국(1299~1922)은 약 600년간에 소아시아 반도를 중심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에 걸쳐 강대국으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의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아 왔다. 터어키 측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服飾文化는 유목민의 기본복식바탕위에서 생활환경과 수요에 적응시켜 양식의 변화가 있어 왔다고 본다.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서와 같이 그들은 서역국과도 교역을 하였고 헬레니즘과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슬람교 세계에서 막강한 존재가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일부다처제로 하렘제도가 생기게 되는 독특한 문화와 생활형태에서 복식문화도 발전해 나갔다.
2. 터어키 복식은 오스만 터어키(1299~1922)때의 것으로 수집된 것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의 것인 Topkapi Saray궁에서 발굴된 것으로 주로 오스만 터어키 황제들의 kaftan들이고 그외는 세밀화(miniature)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터어키의 기본복은 속옷으로 풍성한 gömlek을 입고 바지인 shalwar를 허리에서 띠로 묶고 발목에서 끈으로 묶는다. 그위에 실내복인 dölma(kaftan의 일종)를 입고 띠를 매며 그 위에 겹옷, 예식용 kaftan을 입는데 계절에 따라 얇은 것과 방한용으로 누비나 털을 덧댄 것들도 있다. 겹옷이나 예식용 대신에 소매없는 kaftan을 입을 때도 있다. 머리에는 항상 터어번이나 모자를 쓰고 깃털이나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장식하였다. 여자들은 베일이 달려 있어 외출시 얼굴을 가리기도 한다. 신은 부드러운 목이 긴 eizme 부츠나 목이 낮은 cedik을 신는다.
3. 터어키 제국이 동양과 서양의 교역(silk road)의 기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직조기술이 발달하여 화려하고 섬세한 직물들인 kema, kadife, catma, seraser,

zerbeft, hatayi, kntnu, atlas등을 생산해냈다. 직물의 문양을 살펴 보면 고대 슈메르, 아씨리아 때부터 사용하던 문양에서부터 서양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며(palmette lotus) 말기에는 중국에서 사용된 구름문양도 사용이 되었고 특히 tiger stripes과 leopard spots 문양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바다에서 부처가 나타난다는 상징으로 15세기 터어키에서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직물의 문양이 kaftan을 구성하는데 잘 배치하여 더욱 화려한 복식을 발전시켰다.

4. 터어키 복식은 직선 재단 방법으로 원래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방법으로 추정하여 앞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복식을 비교, 연구해야 할 과제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동양복식사나 서양복식사를 연구할 때 필수적으로 터어키 복식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고복남.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集文堂, 1987.
2. 김용문. 아시아의 修髮樣式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대, 1993.
3. 金定慰. 中東史,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4. 무하마드간수.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 출판부, 1992.
5. 황춘삼. 민속의상, 수학사, 1988.
6. 大世界の 歴史(10), 印度와 中近東·極東의 近代, 三省出版社, 1982.
7. 長澤和俊著· 関丙勳譯. 東西文化의 交流, 民族文化社, 1991
8. 形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中世編), 文化出版社, 1984.
9. Alev Lytle Croutier. Harems, Belfond, 1989.
10. Andre Grabar. Byzantine painting, Skira, 1979.
11. Armand Abel. Le Monde Arabe et Musulman, Eeddens, 1968.
12. Basie Gray. Persian Painting, Skira, 1977.
13. David Talbot Rice. Islamie Art, Thames and Hudson, 1989.
14. Ira M. Lapidus. A History of Islamie Societies, Cambridge Uniuersity Press, 1988
15. Jennifer Scarce. Principles of Ottoman Turkish Costume
16. Jennifer Scarce. Turkish Fashion Transitian, Journal of the Costume Society, (Costume 14) 1980. pp. 144-167.
17. Jennifer Scarce. Women's Costume of the Neas and Middle East, Unwin Hyman, 1987.
18. J. M. Rogers, H lye Tezcan, Selma Delibas. The Topkapi Saray Museum, Thams and Hudson, 1986.
19. J. M. Rogers. Islamie Art and Design, British Museum, 1983.
20. Joan Allgrove. Turcoman Finery, The journal of the costume Society, (costume 9), 1975. pp. 47-50
21. Leiden E. J. Brill. Eneyclopedie de l'Islam (Tom V), 1986. pp. 737-758.
22. Lynne Thornton. La femme dans la peinture Orientalists, Acr Edition, 1989.

23. Lynne. Minatures Illuminations of Amir Hosrov Dehlevi's Works, Publishers of the Uzbek SSR, 1983.
24. Nevber G rso, The Art of Turkish Weaving, William A. Edmands, 1988.
25. Patricia L. Baker. The Fez in Turkey : A Symbol of Modernization :, J. C. S. (Costume 20) 1986. pp. 72-85
26. Reuben Levy. Notes on Costume from Arabie Sources, from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April 1935. pp. 319-338.
27. Rober Fossier. The Middle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8. Robert Mantron, Histoire de la Turquie, (Collection Que sais-ge N 539. pressed Universitaires de France, 1982.
29. Roderic H. Davison. Turkey a Short History, Eethen, 1981.
30. Wiebke Walther. Woman in Islam, Abner Schram, 1981.